

나는 어릴때 부터, 담배를 피웠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부터, 지금까지 12년 정도 피워왔기때문에, 내가 “담배와 관련된 규제를 만들어 금지하지 않으면 안된다.” 라고 말하지 않고, 담배를 옹호하는 측이라고 생각할것 같습니다만, 나는 담배를 옹호하지 않는 쪽입니다.

담배가 단지, 어린이만 나쁜 영향을 주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선, 담배의 니코틴은 모든 사람들의 호흡에 나쁜 영향, 매우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이고, 2번째는 담배의 좋지않은 향 때문입니다. 이밖에, 예를들면 담배 때문에, 암의 종류, 병에 걸린다는 것과 좋지 않은 향기 때문에 집안에서, 예를들면, 방이라든지, 응접실이라든지, 그리고 옷이라든지, 담배를 피우는 사람과 담배를 피우지 않는 주위의 사람들까지, 전부, 모든 사람들까지 담배로 인해 나쁜향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어느정도는 금지하는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규제를 만들어 금지하는것은 우습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주위의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것, 이런 권리는 나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사람의 권리도 존중하고, 그들에게 좋지않은 향기를 끼치는것은 좋은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까지도 생각해 주는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회사라든지, 레스토랑이라든지, 버스나 전철등 공공의 장소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도록 어느정도의 규제를 만드는것이 필요하다라고 나는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회가 좀더 좋은 환경으로 되는것을 원합니다라는것과 많은 사람들의 신체가 건강한 신체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